

## 활기찬 새 출발, 2023년 신입생 캠프 개최

지난 2월 13일(월)부터 23일(목)까지 GIST 대학 신입생 캠프가 진행됐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운영된 지난 3년과 달리 올해 신입생 캠프는 전면 대면으로 운영됐다.

신입생 캠프는 신입생의 적응을 돕기 위해 봄학기 개강에 앞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대학 생활을 위한 수강 신청 안내, 자치회 및 동아리 소개 등이 캠프 기간 동안 이뤄진다. 더불어 재학생으로 구성된 신입생 캠프 조장의 주도하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만남의 장으로 활용된다.

캠프 첫 날, 신입생들은 대면식을 통해 학우와 첫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4일부터는 4일간 영어 캠프가 운영됐다. 영어 강사의 지도하에 이메일 작성법, 스트레스 관리 등 학교생활에 유용한 주제를 다뤘다. 수업 중 조원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 학생들이 높은 참여도를 보인 점이 주목됐다. 박준서(기초, 23) 학생은 “평소 영어로 대화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직접 영어로 말해볼 수 있어 좋았다”며 소감을 남겼다.

둘째 주부터는 본격적인 신입생 캠프가 시작됐다. 첫날에는 신입생의 학업에 관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학생들은 전공 소개 특강과 수강 신청 안내를 통해 앞으로 배워야 할 과목과 공부할



23일(목) 집행위 프로그램을 진행한 학생들의 인사로 2주간의 일정이 마무리됐다.

방향에 대해 고민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후 조장과 신입생이 강의실에 모여 수강 신청 계획을 점검했다. 조장과 소통이 중요한 시간인 만큼 대면으로 진행돼 신입생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음 날은 학교생활이 소개됐다. 해외 교류 프로그램과 학생 지원, 학생 자치회에 대해 담당 직원과 학생의 설명이 있었다. 이날 사회를 맡은 GIST 홍보대사 ‘지은나라’의 박현영(전컴, 22) 회장은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진행했던 작년과 달리 대면으로 운영돼 신입생이 더 집중해서 소개를 들었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수요일은 학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이 이뤄졌다. 낮에는 지은나라의 안내로 캠퍼스 투어를 실시했다. 신입생들은 대학생회관에서 출발해 제2 학생회관과 도서관, 제1 학생회관을 거쳐 오룡관으로 이동해 원내 시설을 둘러봤다.

저녁 시간에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준비한 클럽 나이트가 진행됐다. 총 2부로 나눠서 진행된 본 프로그램의 1부에는 각 동아리 소개가 이루어졌다. 2부는 공연 분과에 속한 동아리의 무대로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보컬 동아리 ‘심송생송’과 힙합 동아리 ‘이그니션’, 춤 동아리 ‘막무가내’에 이어 밴드 동아리 ‘도도한쭈쭈바’와 ‘휴강익스프레스’가 공연을 선보였다. 신입생은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박수를 치며 열띤 호응을 보였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설명을 공연으로 대신해 즐거움과 홍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날은 총학생회 집행위원회가 기획한 조별 대항 게임을 통해 조원과 우정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골든벨’ ▲ 교수님과 오목 경기를 펼치는 ‘교수님을 이겨라’ ▲ 주어진 단서를 해결해 방에서 탈출하는 ‘방탈출’ 등 다양한 게임이 준비됐다. 신입생의 적극적인 참여로 프로그램 진행 내내 뜨거운 열기를 자랑했다.

이번 신입생 캠프의 가장 큰 특징은, 대면으로 전환되며 신입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신입생 캠프 조장을 맡은 김도희(전컴, 22) 학생은 “캠프가 대면으로 진행돼 캠퍼스 투어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겨 좋다”며 비대면에 비해 풍성해진 구성을 강조했다.

신입생 캠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데에는 조장 학생의 역할이 컸다. 박준서 학생은 “사소한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주셨다. 조장이 없었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소감을 남겼다.

김예림 기자 key030704@gm.gist.ac.kr

## 마스크 벗은 GIST, 새로운 일상으로의 도약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다. 학내 구성원은 변화된 조치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안전팀은 1단계 조정 이후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밝혔다.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조치(이하 1단계 조정)가 시행됐다.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 취약 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게 됐다.

새 조치에 따라 GIST의 운영 기준도 바뀌었다. 먼저, 강의실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다만 강의실 특성상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 유증상자는 기존과 같이 수업 참여가 제한된다.

교내 시설 이용 수칙에도 변화가 생겼다. 실내 및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 사항으로 바뀌었다. 도서관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으며, 테이블 마주 보기가 허용된다. 정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했던 그룹 스터디실 및 강의실은 정원으로 전부 이용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GIST 학생에 미친 영향은**

1단계 조정 이후 GIST 학생들의 일상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뀐 일상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들었다.

A 학생은 1단계 조정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바뀐 조치가 잘 된 결정이며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B 학생은 마스크를 챙겨 다니며 필요할 때만 자율적으로 착용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안 된 곳도 있어서 들고 다니면서 쓰긴 하지만, 답답할 땐 편하게 벗을 수 있어서 좋다”며 해당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영인(전컴, 20) 학생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학생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한다. 1단계 조정 조치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다른 구성원의 의견은

기초교육학부 소속 직원 2인은 1단계 조정 이후로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이 습관이 됐고, 스스로 안전도 지킬 수 있다”고 이유를 말했다. 다만 1단계 조정 조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우려되는 점은 없다고 덧붙였다.

**< 3면으로 이어짐 >**



## 보도

## 4년 만에 들어선 총학생회

지난 1월 20일 제14대 총학생회장단 “이룸(IRUM)”이 재투표 끝에 당선됐다. 학생회장에는 신관률(생명, 22), 부학생회장에는 양태규(소재, 22) 학생이 당선됐다.

4년 만에 학생들의 손으로 뽑은 학생회장이 탄생했다. 두 후보는 찬성표 72.67%를 득표했다.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재투표에서, 투표율은 50.29%로 선거시행세칙에서 정한 개표 기준인 과반을 근소하게 넘겼다. 이번 총학생회 당선으로 GIST는 오랜 기간 이어진 학부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를 끝게 됐다.

〈지스트신문〉에서는 신입 총학생회장단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 소통하는 총학생회, ‘학교-학생 간 촉매제 되겠다’

#### 출마 계기는?

**신관률(이하 ‘신’):** 지난 11월, 4대 과기원 예산 이관 문제에 관한 학교의 입장을 듣고자 ‘오픈 튜즈데이(OPEN TUESDAY)’를 신청했다. 그때를 계기로 오픈 튜즈데이에 정기적으로 참여했다. 총장님과 대화하면서 총학생회의 부재로 인해 학교 측에서 학생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총학생회가 생긴다면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겪는 여러 불편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접 총학생회를 만들어 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총장님 및 직원분들과 자주 만나 보며 공약을 구체화했고, 출마까지 이어졌다.

**양태규(이하 ‘양’):** 비대위 체제의 한계를 총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셨다. 나아가 과기원의 특색, 국제 협력, 동아리 활동에 관해 학생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 총장님과 고민을 나눴다. 총학생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 수렴과 학교와의 협력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 회장단이 생각하는

##### 이번 총학생회의 캐릭터가 있다면.

**신:** 우선 ‘소통’이다. 총학생회 부재 동안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이 단절됐다. 자치회의 의견이 통합되지 않아, 학교는 학생 복지를 위한 정책이나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지 못했다.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학교와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 싶다.

**양:** 간단히 비유하자면, ‘촉매제’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겠다. 학교와 학생 사이의 소통 창구가 없진 않지만, 학교와 직접 소통하기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 14대 총학생회 ‘이룸’ 주요 공약

### 생활이 편리한 학교를 IRUM

- ▶ 모바일 학생증 도입
- ▶ 재수강 기준 완화 및 재수강료 인하
- ▶ 지스토리 확대 및 개편
- ▶ 방학 중 기숙사 잔류 사유 확대
- ▶ 벌점 민회 제도 구체화

### 동아리와 문화가 꽃피는 학교를 IRUM

- ▶ 동아리 특별 예산 확대
- ▶ 축제 기간 동안 부스 담당자 공결 허용
- ▶ 응원가 개편
- ▶ 가동아리 동아리방 배정
- ▶ 축제 재학생 존 설치

###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투명한 학교를 IRUM

- ▶ 사이트 차단에 대한 문의 대행
- ▶ 학교 자치회 정보 공개 확대
- ▶ 자치회 청원 사이트 및 집행위 QnA 채널 개설
- ▶ 교류복지국 내 외국인 학생 1인 모집
- ▶ 협력 업체 만족도 조사 실시

삽화 = 송혜근 기자

학생도 있다. 학생들의 의견을 총학생회가 빠르고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 가장 시급한 문제와 해결 방안은?

**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소통이다. 그중에서도 학생과 학생회 간의 소통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생들의 많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학교 측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학생과 각 자치회 간 소통 창구를 많이 개설하겠다.

**양:** 학생회의 정책 구성 및 학교 측과의 협의 모두 학생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Q&A 채널이나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학부생과의 연결점도 새로 만들겠다.

**사회:** 그렇다면 지금까지 학생과 학생회 간의 소통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어떻게 보고 있나?

**양:** 그간 비대위 내 협의 전에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을 필요가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학생 의견이 정책에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과거에는 학생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학생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 소통은 결국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학생들이 학생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월마다 학생 간담회를 개최해 진행한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 마련을 고려하고 있고, 회의록 등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신:** 기존 Q&A 채널은 실명으로 질문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제기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체 청원 사이트 개설을 통해 소통 창구를 정비하겠다는 공약을 실현할 것이다. 집행위원회 정보국에서 과거 사용된 ‘지스토리’를 재정비하고 있다. 준비가 마무

리되기 전까지는 기존 ‘지스토리청원’ 사이트를 활용할 예정이다.

**양:** 장기적으로는 지스토리를 통해 자치회를 포함한 학생회의 소통창구 및 게시판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 학생회 내 자치회와의 관계 설정은?

**신:**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와 모든 자치회는 학생 정책을 위한 협력자이자 하나의 팀이다. 기존 자치회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총학생회가 출범한 만큼, 각 자치회의 독립적인 운영과 함께 자치회 간 논의와 협력을 늘리는 방안을 찾겠다. 특히, 각 자치회의 간의 적극적인 업무 협업을 지원할 것이다.

#### 기숙사 잔류 사유나 모바일 학생증 도입과 같이 학교와 협력이 필요한 공약 이행에 대한 계획은?

**양:** 학교와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제시할 수 있다. 질문하신 기숙사 잔류 사유 변경 건은 기타 사유를 구체화해서 확대하는 방안, 모바일 학생증 도입 건은 학생 이용이 많은 건물부터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학생회가 이를 해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론조사 등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를 근거로 계속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신:** 학교를 설득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근거는 타 대학 사례이다. 특히 타 과기원의 예시를 중점으로 살폈다. 모바일 학생증 도입 건의 경우에는 KAIST 총학생회, UNIST 직원과 연락해 두 대학 학생의 만족도와 우려 사항에 대해 답변받은 바 있다. 각 과기원 사례를 통해 해당 건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학교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

####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양:** 예산안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결돼야 하는 사항이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 올해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새로운 사업 추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선거 기간 중 총장님과 논의한 결과 추가 예산 편성 및 조정 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와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 추진 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 예산과도 직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 장기간의 총학생회 부재와 인수인계 측면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신:** 전임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자치회장으로부터 작년도 업무와 올해 바라는 점에 관해 전달받았다. 그중 부족한 점은 학생회가 보유하고 있는 6대, 8대 학생회 자료를 바탕으로 보충했다. 후보자 시절 내세웠던 공약을 점검하면서,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공약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장기간의 총학생회 부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장기간 총학생회 부재를 실감하는 점이 있다면.

**양:** 자치회들이 분산돼 활동했다는 점이다. 자치회 간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

에 대해 더 고민하고 있다.

#### 총학생회에 대한

##### 학생들의 관심도는 어떻게 보는지?

**양:** 몇 년간 총학생회의 부재로 비대위와 총학생회의 차이점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 총학생회가 비대위와 비교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리기 위해 발 벗고 뛰어어야 한다.

**사회:** 총학생회와 비대위의 차이점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나?

**신:** 비대위는 집행위원회에만 국한된다면, 총학생회는 자치회의 의견을 한데 묶어서 학교에 전달한다. 따라서 복지 예산을 투입할 때 더 효과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양:** 학생회 측에서 의견을 조정하기 때문에 학교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이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당성 면에서도 다르다. 비대위장은 투표가 아니라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총학생회는 정책 자료집과 후보자 토론을 바탕으로 투표를 통해 학생들의 공감대를 얻었다는 점에 있어 대표성을 띤다.

〈 다음 면으로 이어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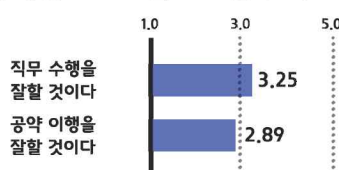
# 학생들은 ‘기대 반, 우려 반’

## 총학생회 여론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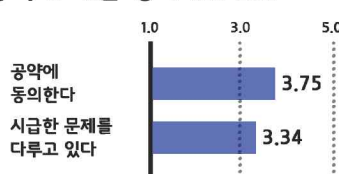
응답 대상 : GIST 학부생 56명

삼화 = 송혜근 기자

총학생회에 대한 기대감 (점수,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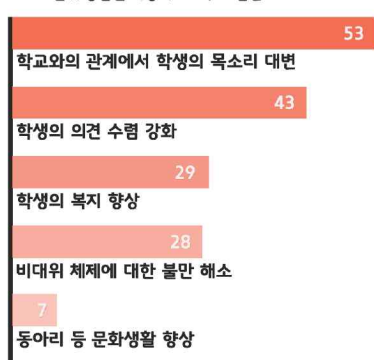


공약에 대한 평가 (5점 만점)



총학생회에 바라는 점 (점수)

점수: 1순위 응답은 가중치 2, 2순위 응답은 가중치 1로 두고 합산



### 마지막으로 한 마디.

신: 2018년 겨울 이후로 처음 탄생하는 총학생회인 만큼 기대와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GIST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으며 최대의 편의와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발 벗고 노력하겠다.

양: 걱정과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그만큼 학생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회뿐 아니라 모두 같이 협업해서 정책을 만들어가고 싶다. 학생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스트신문>은 제14대 총학생회에 대한 학부 학생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유권자였던 22학번 이상(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56명이 응답했다. 본 조사의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12.59%p다.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기대감은 총점 5점 만점에 3.25점으로 조사됐다. 낮은 기대감을 표한 응답자들은 그 원인으로 “공약 실현에 대한 우려”, “학교생활, 자치회, 학교 행정 경험 부족, 발표나 질의 시 미흡함” 등을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공약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를 표했다. “학생회장단의 공약이 학교의 시급한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3.34점, “학생회장단의 공약에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3.75점으로

공약 내용에는 동의를 얻는 데 성공했다. 다만, 공약 이행률에 대한 기대감은 2.89점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총학생회장단의 공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을 대부분 알고 있거나 대체로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66.0%(37명)로, 공약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총학생회장단에게 가장 기대하는 점은 “학교와의 관계에서 학생의 목소리 대변”과 “학생의 의견 수렴 강화”가 꼽혔다. “학생의 복지 향상”과 “비대위 체제에 대한 불만 해소”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제14대 총학생회장단에게 “실수해도 좋으니 자신감을 갖고 임해달라” 등 격려를 표했다. 한편, “향후 총학생회를 위한 기반을 다지길 바란다”, “학생이 학교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등의 당부의 말을 남겼다.

김기범 기자  
kibeomkim@gm.gist.ac.kr

# 방역 지침 변화가 바뀌 놓은 일상

### < 1면에서 이어짐 >

창업진흥센터 소속 A 직원은 1단계 조정 이후에도 실내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며, 해당 조치는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는 결정이라는 의견을 드러냈다.

강의실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반가운 소식이다. 언어교육센터 Ellis Lee 강사는 1단계 조정 이후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강의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학생들이 교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워진다. 오랜 시간 말하기 불편하기도 하다”며 이유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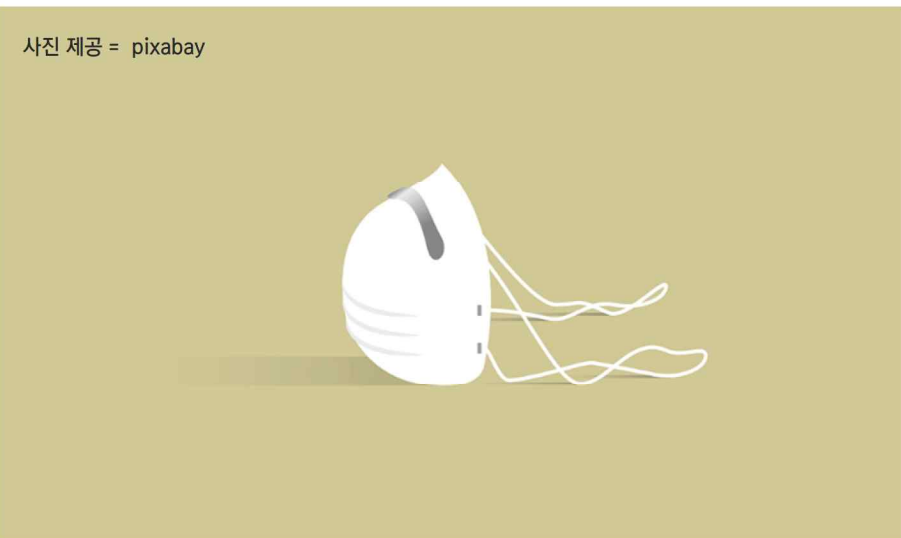
Ellis 강사는 1단계 조정에 대해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해외 사례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보다 인구 밀집도가 높아 감염될 위험이 더 크다”라며 여전히 안심할 수 없음을 역설했다. 덧붙여 감염 위험이 낮은 경우, 정부는 확실적인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대신 시민

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시민들은 언제 마스크를 착용할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안전팀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GIST 구성원에 감사를 전하는 동시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감염병 대응 단계가 여전히 “심각”에 머물러 있고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팀은 1단계 조정이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며, 국가 차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팀은 “일부 언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여전히 마스크는 감염을 차단하는 유일한 방어막”이라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팀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에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



료기관에서 진단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안전팀은 증상이 나아질 때까지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자가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한 양성 확인 또는 코로나19 확진 시 GIST 코로나19 상황반과 부서 방역 관리자에게 신속하게 신고해야 함을 알렸다. 안전팀은 “GIST 학생 대부분은 원내 생활관에 거주하며, 연구실 및 학내 활동으로 다른 구성원들

과 끊임없이 접촉한다. 따라서 신고 지연으로 조치가 늦어지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며 경각심을 고취했다.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새로운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GIST 구성원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이재희 기자  
jhlee.ug@gm.gist.ac.kr



기획

# 자연과학동 · 지니어스 COOP · 하라홀, 여유를 갖추다

새 학기를 맞아 GIST 캠퍼스에 세 개의 건물이 새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3월 2일 제2 학생회관 맞은 편 자연과학동이 공개됐다. 제1 학생회관 앞에는 '지니어스 COOP'이 지난 2월 1일 개관식을 열었다. 대학원 기숙사 뒤편에는 '하라홀(Hara Hall)'이 증축돼 지난 1월 26일 개관했다.



① 자연과학동 외부 전경의 모습이다.  
 ② 1층에서 2층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위치한 커뮤니티 스텝의 모습이다.  
 ③ 2층 공용공간에 스튜디오와 강의실이 자리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자연과학동 신축이 완료됐다. 자연과학동은 지난 1월 30일 준공 후 약 한 달간 내부 시설 점검 및 장비 시운전을 거쳐 3월 2일 공개됐다. 자연과학동은 제2 학생회관과 중앙연구기기센터의 맞은편에 있다. 자연과학동에는 물리광학과와 연구

실과 대학 공용공간이 들어선다. 기존 물리광학과 연구실은 대학 A, B, C 동과 고등광기술연구소, 극초단광양자빔특수연구동에 흩어져 있었다. 신설된 자연과학동에는 물리광학과와 시설과 장비가 옮겨져 전체 공간의 70%를 사용할 예정이다. 나머지 30%는 소통

## 자연과학동 소통과 몰입의 공간이 되다

과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원내 구성원 모두에게 열린다.

대학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연과학동 시설은 1, 2층 승강기 앞쪽에 있다. 건물 1층에 있는 창의 융합 공간은 원내 구성원의 모임이나 자유로운 회의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취식 공간이 있어 자유롭게 음식을 먹으며 소통할 수 있다.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하는 경로에는 '커뮤니티스텝'이 갖춰졌다. 자유로운 토의와 도서 열람을 위해 설계된 계단 형태의 의자다. 2층 공용공간에는 3개의 강의실과 MOOC 등 영상 미디어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가 자리 잡았다.

시설운영팀 강창현 팀장은 "교수와 학생의 제안을 최대한 반영하며 내부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자연과학동은 전반적으로 편안하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가구를 배치해 사용자가 개성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강 팀장은 "일반적인 사무 공간이 아닌 자유분방한 분위기로 창의적인 영감과 몰입감 유도가 목적"이라며 자연과학동만의 새로운 역할을 설명했다.

물리광학과가 사용하는 본건물 1, 2층에는 한 개의 학부 강의실과 여러 연구실이 배치됐다. 3층부터 5층에는 ▲분야별 연구실 ▲해동라운지 ▲

학생연구실 ▲세미나실 ▲강의실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예비 공간이 자리한다. 물리광학과와 이종석 학과장은 "더 넓어진 환경에서 연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학과장은 "물리광학과와의 구성원이 자연과학동 한 건물에 모였다. 이로써 연구 시설 활용, 회의 및 스터디 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연과학동과 중앙연구기기센터 및 각종 연구동의 거리가 가깝다 보니, 타 건물과의 교류, 협력이 더 긴밀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학과장은 "올해 여름방학까지 대학동과 연구소로부터 물리광학과와 시설과 장비를 차근차근 옮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획팀 이승재 팀장은 "자연과학동 이전 후 발생할 대학동과 연구소의 기존 사용 공간은 추후 공간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필요한 학부 및 학과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시설운영팀 강 팀장은 "신축된 자연과학동은 교내 구성원에게 아이디어 창출과 몰입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여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창조적 생태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 지니어스 COOP GIST를 브랜드화하다

지난 2월 1일, GIST 제1 학생회관 앞에 지니어스 COOP(이하 굿즈샵)이 개관했다. 굿즈샵은 GIST의 발전기금 모금과 운영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지스트 발전재단에서 관리한다. GIST 대표 캐릭터인 '지니&어스'를 활용한 각종 기념품과 와인, 의류, 생활소품 등을 판매한다.

2023년 2월 18일 기준 굿즈샵 방문객은 하루 평균 100여 명에 달한다. 대외협력팀은 굿즈샵의 모든 판매수익금은 굿즈샵 운영과 GIST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굿즈샵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추후 주말 운영도 검토될 예정이다.

지니&어스는 2020년 대외협력팀에서 학교 홍보를 위해 개발한 대표 캐릭터이다. GIST만의 고유한 가치를 재정의하고 전제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표 인지도를 부여했다. 대외협력팀 김

효정 팀장은 "지니&어스는 컴퓨터와 과학자를 형상화한 디자인이다. GIST의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를 비유함으로써 GIST 구성원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지니&어스를 활용한 굿즈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됐다. 202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및 굿즈 개발에 관한 원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 김 팀장은 "원내 구성원들이 GIST 굿즈와 함께 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높이고 싶어한다"며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학교에 유연하고 활발한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팀장은 "오프라인 굿즈샵 구축 이후 온라인으로도 굿즈를 판매할 예정"이라며 판매 영역 확대를 시사했다. 또한,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구축해 GIST만의 고유한 가치를 내세울 것"이라며 굿즈샵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대외협력팀은 재학생 굿즈 아이디어



④ '지니어스 COOP'의 외부 전경 모습이다.  
 ⑤ 내부에 지니&어스 굿즈가 전시되어 있다.

팀인 'GIST Goods Lab'과 굿즈 개발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GIST Goods Lab'은 학생과의 소통 창구로서 개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끝으로 김 팀장은 "굿즈 선호도 조사,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니 원내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 다음 면으로 이어짐 >







증축 완료된 하라홀의 내부 시설 모습이다.

지난 1월 26일에는 대학원 생활관 뒤편에 있는 하라홀의 증축 개관식이 열렸다. 하라홀은 종교(할랄 등), 음식 기호 등의 이유로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외국인 구성원을 위한 조리 및 식사 공간이다. 해당 공간은 2003년 11월 준공돼 현재까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그간 하라홀은 수용 인원이 적어 식사 시간마다 혼잡한 모습을 보였다. 준공 당시 원내 외국인 구성원은 90여 명이었으나, 2023년 1월에는 162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GIST 외국인 구성원 대표 Hira Arif(의생명, 박사과정) 학생은 “사람이 많다 보니 식기기와 개인 캐비닛 등을 여유롭게 사용하

## 하라홀

외국인을 위한 쾌적한 환경 선보이다

지 못했다”며 증축 이전에 겪었던 불편을 토로했다.

하라홀은 내부 시설과 요리 기구가 노후한 문제도 있어 총 10개월에 걸쳐 증축 설계 및 공사가 진행됐다. 또한 ▲캐비닛 교체 및 추가 설치 ▲쿡탑(인덕션) 및 보조 식탁 추가 설치 ▲식사 공간에 식탁 배치 ▲정수기 교체 ▲냉장고 일부 교체 등 내부 시설이 확충됐다.

증축된 하라홀은 조리용 공간과 식사 공간이 분리됐다. Arif는 “하라홀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모여 각자의 음식을 만들어 먹는 공간이다. 혼잡한 시간대에는 여러 음식이 함께 조리되고, 식사와 요리가 함께 이뤄졌다. 따라서 증축 이전 하라홀에서는 다른 사람의 음식 냄새를 계속 맡으며 식사할 수밖에 없었다”며 불편했던 점을 언급했다. 이에 “이번 증축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하라홀 증축에 외국인 구성원 대다수가 만족했다. 특히 내부 시설 교체가 주목받았다. 이용자들은 음식 냄새, 식기구 저장공간, 조리기구 배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한편 늘어난 시설이 전체 이용자 수보다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외국인 학부생은 “조리 선반 공간 등이 아직 부족하다. 추가 개선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Arif는 “이번 증축으로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조리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됐다”며 “앞으로 건물 내부에서 문화의 밤 행사 준비, 전통 행사 등 활발한 교류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전태성 기자 taesung1121@gm.gist.ac.kr

# GIST, 전기차 주행거리 1.5배 늘리는 소재 개발해

GIST 신소재공학부 엄광섭 교수 연구팀이 기존 용량보다 약 1.5배 증가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나노 판이 겹겹이 쌓인 계층 나노구조의 바나듐 산화물 양극제<sup>1)</sup>를 이용해 용량을 늘렸다. 늘어난 에너지 저장 용량은 전기차 주행거리를 약 50%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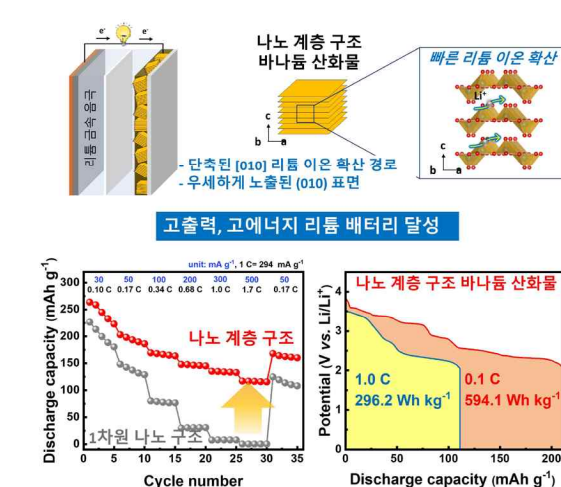
### 리튬이온 배터리 용량 증가가 관건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물질의 산화환원 반응으로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조는 크게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으로 구분된다. 이 중 배터리 용량을 결정하는 양극은 얇은 양극 기재 위 합체를 바른 구조다. 합체는 양극활물질, 도전재, 바인더로 이루어진다. 합체에 사용되는 양극활물질 종류에 따라 배터리 용량이 달라진다.

그동안 양극활물질에 사용되는 전이 금속의 종류를 다르게 하거나 비율을 바꿔보는 등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돼왔다. 배터리 용량 증가는 전기차 주행거리 증진으로 이어지기에 전기차 상용화를 위한 우선 연구로 다뤄졌다. 기존 연구에선 니켈, 코발트, 망간, 철의 산화물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이 금속을 이용한 용량 증대는 이미 한계에 달해 더 이상 배터리 용량을 늘리기 어려웠다.

###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에 혁신을 주다

연구팀은 기존 양극재의 한계로 지적된 낮은 이론 용량<sup>2)</sup>을 보완하기 위해 바나듐 산화물을 새로운 양극재로 사용했다. 바나듐 산화물의 이론 용량은 기존 양극 소재 대비 약 1.5~2배 이상 높다. 그러나, 구조



(위) 바나듐 산화물 양극, 리튬 음극으로 구성된 리튬 배터리 (아래, 좌) 양극 구조에 따른 방전 용량을 비교한 그래프 (아래, 우) 전류밀도에 따른 방전 용량을 비교한 그래프

안정성이 낮고 이온·전자 전도성이 낮아 전기화학적인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 많은 연구에서 제외됐다.

이번 연구는 바나듐 산화물의 구조를 바꿔 느린 반응 속도 문제와 높은 전류밀도<sup>3)</sup>에서의 급격한 용량 감소 문제를 해결했다. 연구팀은 기존 수열 합성법<sup>4)</sup>에 결정 성장 억제제를 첨가한 후 열처리를 진행하는 새로운 합성법을 통해 계층 나노구조의 바나듐 산화물 양극재를 개발했다.

새로운 구조의 양극재는 리튬이온의 효과적인 이동 통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이동 거리를 줄여 빠른 충·방전 전류 조건에서도 높은 배터리 용량을 확보했다. 소재의 계층 나노구조는 충·방전 시 활성 물질의 구조 붕괴나 입자 간 응집을 방지해 동체가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양극재는 1차원 나노구조의 바나듐 산화물이 높은 전류밀도에서 용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단점을 보완했다. 연구팀은 전하량의 크기에 따른 방전 용량 측정 실험으로 높은 전류밀도에서 용량의 변화를 확인했다.

새 양극재는 반응 과정에서의 에너지 손실도 확연히 적었다. 연구팀은 새로운 양극재를 사용한 반쪽 셀<sup>5)</sup>을 구현해 에너지 손실 정도를 측정했다. 계층 나노구조의 바나듐 산화물 양극재는 100회의 충·방전 이후 약 80%에 달하는 용량 유지율을 기록했다. 이는 기존 1차원 구조의 바나듐 산화물의 용량 유지율인 6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 고성능 배터리 구현에 응용 가능성 제시

연구팀은 개발된 양극재와 리튬 금속 음극을 완전 셀<sup>6)</sup>로 구성해 리튬 배터리를 구현했다. 새 양극재는 차별화된 구조로 배터리 상용화를 위한 두꺼운 전극에서의 실험에서도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 새로운 배터리는 양쪽 전극 무게 기준으로 기존 리튬이온 전지 대비 1.5배 향상된 592Wh/kg의 높은 비 에너지<sup>7)</sup>를 가졌다. 기존 배터리보다 1.5배 큰 에너지 용량은 완충 시 주행거리를 1.5배 증가시킨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엄광섭 교수는 “본 연구 성과가 차세대 고에너지 리튬 금속 배터리 개발에서 고용량 리튬-프리 양극재의 중요성과 양극재 나노 구조화를 통한 전기화학 반응속도 성능 확보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본 연구는 국제학술지 스몰(Small)에 2023년 1월 4일 자 전면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김원제 기자 wonjekim@gm.gist.ac.kr

1) 양극재 :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 등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  
 2) 이론 용량 : 리튬이온전지용 전극 물질이 가지는 고유의 최대 리튬 저장량  
 3) 전류밀도 : 전극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류의 세기  
 4) 수열 합성법 : 고온고압하에서 물 또는 수용액을 이용해 물질을 합성하는 액상 합성법  
 5) 반쪽 셀 : 음극 혹은 양극 쪽에 리튬 이온을 무한으로 공급할 수 있는 리튬 금속을 넣고 만든 셀  
 6) 완전 셀 : 양극과 음극이 동시에 전기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형태  
 7) 비 에너지 : 단위 중량당 내부 에너지



## 보도

# 과기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운영 자율성 제고되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1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로 KAIST, GIST, DGIST, UNIST 4개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해당 조치로 과기원의 운영 자율성이 제고되며, 교육·연구기관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 조치의 목적은 과기원의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과기원의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 각 과기원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감독 방안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에도 각 과기원 개별법에 근거한 사항 등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사항들은 여전히 준수돼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과기원의 인건비 운용 제약이 완화되는 것이다. 그동안 과기원은 총액인건비 제도<sup>1)</sup>에 따라 연간 인건비 총액을 기재부에 의해 제한받고 있었다. 과기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어 해당 규제에

서 벗어나 인건비 운용에서 많은 재량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외 우수 석학을 초빙하거나, 박사후연구원을 더 선발하는 등 인재 유치 측면에서 자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기관인 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인건비 운용이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또한, 발전기금 규모가 큰 KAIST를 제외한 다른 과기원이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늘어나는 인건비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염려하는 시선도 있다.

GIST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 조치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기획팀 이승재 팀장은 "GIST는 그동안 교육·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과기원은 일반 공공기관과

는 성격이 다르기에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필요했으나, 공공기관으로서 받는 제약 때문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웠다"며 기존 체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GIST는 본 조치로 인해 국제적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팀장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기관 운영 자율성이 제고돼 세계 수준의 석학 초빙, 핵심 연구인프라 구축, 국제 공동연구 협력 추진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한, "GIST는 운영 자율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공공성을 유지하고 청렴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이 팀장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조치로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조치는 기관의 경영과 행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학생의 학업이나 연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서 기자 pjsalex122@gm.gist.ac.kr



삽화 = 이경민 기자

1) 총액인건비제도: 정부조직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1년에 사용할 인건비의 총액을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

## GIST 여교수회, 다양성 있는 캠퍼스 문화 만든다

GIST 여교수회(이하 여교수회)는 원내 소수집단이 겪는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기 위한 모임이다. <지스트신문>은 2022년도 여교수회 부회장을 지낸 최정옥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교수회의 목적과 활동을 조망한다.

### 여교수회가 설립된 배경과 목적은?

여교수회는 과기원 내 소수집단인 여성의 어려움을 나누고 대변하기 위해 2019년 설립됐다. 당시 GIST의 여교수 인원은 8% 정도로 아주 적었다. 이전 정부에서 여교수의 비율을 개선하는 기조가 생겨 지금은 12% 안팎까지 높아졌으나 여전히 적은 비율이다. 성비 불균형 현상은 비단 교수뿐만 아니라 원내 중요 구성원인 학생에게서도 나타난다.

현재 여교수회는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활동 중이다. 여교수회는 원내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 논의하는 활동을 시작으로 원내 소수집단이 겪는 각종 어려움을 나누고 있다. 시기별로 중요한 이슈를 논의하고 서로를 대변하는 것이 여교수회의 목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기획 특강을 마치고 황정아 박사와 여교수회 회원이 모인 모습이다.

### ‘점심 어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점심 어때’는 시기별로 정해진 주제에 관심 있는 학생이 모여 점심시간에 대화를 나누고 멘토링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한 달에서 두 달을 주기로 여교수회 교수 서너 명이 소그룹으로 돌아가며 진행한다. 주제 예시로는 진로에 관한 이야기, 학위를 밟는 과정에서 생기는 생활과 관련된 어려움, 외국인 학생이 겪는 어려움이 있다. 활동이 잘 이뤄지고 학생의 호응도 좋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멈추게 됐다.

### 기획 특강 연사자 선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학내 구성원 전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여교수회의 활동 취지를 살릴 수 있는지를 고려해 특강 연사자를 선정한다. 선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한다. 지난 11월 특강 연사자 한국천문연구원 황정아 박사의 경우, GIST 학부와 큰 연관이 없는 전공이지만 학생의 고민에 열심히 답변해주실 것을 기대해 선정했다. 황 박사는 젊은 여성 과학자라는 점에서 소수집단에 해당하면서도 멘토링까지 활발하게 하시는 분

이기 때문이다. 서로 공통점이 있지 않더라도 각자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을 공유하는 경험이 진로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기획 특강을 준비할 때 어려움은 없었나?

오프라인으로 열린 11월 특강과 달리 5월 특강은 온라인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많았다. 원거리에서 특강이 진행되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이 끊기는 등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불안했고, 특강 중에 돌발 상황이 생길까 걱정이 가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행연습을 꼼꼼히 했으며, 다행히 별 탈 없이 특강을 마쳤다.

### 학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올해도 특강을 비롯해 여러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여교수회는 학생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다. 학생들 각자가 고민이 많을 텐데 여교수회에 관심을 두고 무엇이든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여교수회 활동을 통해 본인에게 딱 맞춰진 그룹에 한정되기보다 다양한 그룹과 교류하는 캠퍼스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김성우 기자  
kimseongu22ug@gm.gist.ac.kr



# Course Registration Struggl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GIST

Despite being a famous research institution, GIST is notable for incorporating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urses in its curriculum. However, even though GIST is an international school that draws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thanks to its English-taught curriculum, only a few Humanities courses are available in English. This is challenging for international students because they must take numerou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courses to graduate.

As GIST has a liberal arts and sciences curriculum, one graduation requirement for undergraduate students is to tak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courses. Each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course is classified into three areas: HUS, PPE, and GSC. To graduate, students must take 24 credits from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hich amounts to 2 courses from each division. Additionally, 12 more credit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courses can be acknowledged as free elective credits making the total number of credits taken 36 on average.

According to the visions of the Liberal Arts and Sciences curriculum in GIST, the basic science curriculum aims to give students a foundation to build their future scientific careers. It does so by ensuring that they grasp the world around them through fundamental scientific principles. Students gain knowledge of several research techniques that they might use in their significant future courses in addition to the principles taught in natural science or engineering science courses.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curriculum also plays a significant role in GIST College's goal. GIST believes the knowledge of science

and technology greatly influences our manner of existence as humans. Science and technology experts will occupy increasingly significant social roles and more responsibility. As a result, the curriculum in GIST is created as a well-rounded program of study that equips students to carry out their duties in this emerging society.

Initially, GIST was one of the few educational institutions in Korea that taught primarily in English, but it has shifted to Korean teaching over time.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after GIST started welcoming international undergraduate students, it has begun its transition to teaching in English. However, only major and basic science courses are usually taught in English.

In 2022, there were 51 courses offered in the HUS 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Of the 51 courses taught, only four are in English, with two courses designed for international students only to familiarize them with Korean culture. Furthermore, there are about 56 courses taught in the PPE division, with approximately eight courses taught in English. So far, even though there are around 17 courses taught in the GSC division, they are all taught in Korean. This shows that only almost 10 percent of all courses in Humanities are taught in English.

We asked an international junior in GIST about her experiences with humanities courses offered in English. She told GISTNEWS, "Every semester during course registration, I am forced to take humanities courses that I am uninterested in to fulfill my graduation requirement because it is the only course offered in English."

Every semester, two or three humanities courses are open for international students. However,

some courses in the HUS and PPE divisions are offered once in two years. Hence, since a few courses are redundantly opened, international students struggle with course selection after their 2nd year since there are fewer English course options. This restricts international students from taking the courses they are interested in and possibly hinders them from fulfilling graduation requirements.

Two international students who wanted to remain anonymous expressed their concern to GISTNEWS since they had no options to take Humanities courses this semester as they had already taken the courses offered. Another international Freshman told GISTNEWS, "I understand it is hard to change the courses to English completely, but it would be nice if GIST gives English courses in Humanities at least during the summer and winter semesters."

Even though GIST is an international campus, most Korean students still prefer to take a lecture in Korean. GISTNEWS asked a few Korean students how they would feel if the courses changed to English. "It will be hard for us," one student said, "Humanities courses require a higher level of English language than major courses, but if it were to change, it would be a good learning experience for us." However, from the impressions GISTNEWS gathered from the inquiries, most Korean students find the idea of Humanities courses in English truly scary.


According to Humanities professor Jang Jinho, professors are concerned about the need to open English courses in humanities. He told GISTNEWS there could be several alternatives to resolve this issue. Firstly, he proposed

that professor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change some of their courses in English. He explained that this is the ideal situation even though it is hard work for professors. This is a work in progress, and he assured GISTNEWS that students could expect more courses to open in the foreseeable future.

He also proposed an alternative method for international students, such as opportunities to take humanities courses on MOOC or other third-party teaching platforms from other universities and have the credits acknowledged. The other alternative he suggested was to take courses offline at other universities and transfer their credits to fulfill their requirements since GIST students can do an exchange semester in other universities, both abroad and in the country.

The mission of the Liberal Arts and Sciences curriculum in GIST is to provide students with courses that will help them develop the knowledge and character needed to reflect on their own lives and the lives of those around them. This will ultimately lead to lives that are not only more prosperous but also more fulfilling. Hence, incorporating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courses as a graduation requirement is essential in shaping a thriving scientific community. Therefore, as GIST transitions to a global campus, it should find measures and consider alternatives to mitigate the lack of Humanities courses taught in English so that international undergraduate students have more varied options for course selection.

Reporter Mihret Abebe  
Mihret.abebe@gm.gist.ac.kr





Email) [editor@gist.ac.kr](mailto:editor@gist.ac.kr)  
Tel) 062-715-5810

## 제보 및 기고를 기다립니다.

궁금한 일이 있나요? 지스트신문에 취재 요청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자유로운 주제의 기고문 환영합니다!

지스트신문이 학내구성원들의 다양한 제보 및 기고를 기다립니다.

 지스트신문  
 지스트신문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애초에 내 것이 아닌 것들

르브론은 2월 8일 38,388골을 넣음으로써 NBA 통산 득점 1위에 올랐다

이 기록이 얼마나 위대함은 이것이 깨질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25세 이하의 어린 선수 중 돋보이는 선수는 23세 루카 돈치치가 있다. 그는 23세의 르브론보다 1,200점 뒤처져있다. 앞으로 6시즌 동안 부상 없이 70경기씩 32.5골의 페이스로 득점을 올려야만 돈치치는 29살 르브론의 기록을 따라잡을 수 있고, 그때부터 11년 넘게 꾸준히 뛰어야만 통산 득점 1위를 넘볼 수 있다.

한 분야의 대가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이

“요즘 애들은 조연을 주변 선배들한테만 구하더라. 그 1, 2년 차이로 무얼 알 수 있겠어. 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데 말이야.”

후배가 사업체에 일하면서 친해진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다. 그가 어른들한테 들은 조언 중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를 물었다. “한 분야에서 대가가 되려면 나이가 제일 중요해. 한 살, 한 살 달라지는 것이 체감될 거야. 지금에야 밤새워 일하는 게 가능하지. 서른이 되

면 그게 힘들어져. 마흔이 되면 뇌가 빼먹거리는 걸 느끼게 될걸. 그 이후엔 사십 대까지 이뤄낸 것으로 영위하는 거야.” 이는 오늘 같이 저녁을 먹은 장호 군이 한 이야기와 일맥상통했다.

인생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지만 그것은 너무 어린 이들의 객기이거나 늙은이들의 걸치레에 불과하다. 인생엔 중요한 시기가 분명히 있기에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분류해야만 한다. 이는 앞으로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애초에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아쉬워하지 않을 수 있다.

불공평하게도

방황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항상 가역적이고 달가운 것은 아니다. 방황은 지나가는 곳이지 낭만적으로 오래 머무를 곳이 아니다.



신재룡  
(전컴, 19)

## GIST에 ‘모카’라는 축을 세우겠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GIST에서 소문이 자자한 ‘모카쇼’에 관해, 모카쇼를 기획한 모카 단체의 이정환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모카는 어떤 단체인가요?

**이정환:** 처음엔 ‘목요일에 화화학 옷자’라는 뜻에서 출발하여 ‘목화’로 지었지만, 발음 편의상 ‘모카’로 변경했습니다. 모카의 설립 취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GIST 구성원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주자!’입니다. GIST 학생 대부분은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데, 옆 방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서로 알아가고 친해지고 싶은 욕구는 있었으나, 그러한 기회가 없어서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콘텐츠를 기획해서, 서로를 알아갈 기회를 제공하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GIST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높이고, 학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싶었어요. 한 마디로 모카는 GIST 엔

터테인먼트라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로 선보이는 콘텐츠가 바로 ‘모카쇼’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모카쇼는 어떤 느낌의 행사일까요?

**이정환:** 일단 저희는 GIST에서 진행했던 여러 행사에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바로 단방향 소통 방식의 행사라는 기존의 틀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가끔은 행사 참여자를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공연자와 기획자를 위한 행사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사 참여자가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행사 참여자가 게스트와 청중으로서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 이룸하여 모카쇼를 기획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카쇼는 GIST의 SNL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더라도, GIST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게스트로 참여하여 자신의 매

력을 뽐낼 수 있습니다. 혹은 청중으로 참여하여 모카쇼 중간중간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GIST 구성원이 다 함께 모카쇼를 만들어감으로써, 모카쇼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이 공유될 것이고, GIST에 새로운 문화와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행자:** 모카의 비전은 무엇이죠?

**이정환:** 먼저 GIST라는 평면 공간에, 모카라는 z축을 세우려 합니다. 모카라는 z축을 기준으로, 자신의 예술성을 표출하고 싶은 사람,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해보고 싶은 사람, 모카쇼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을 모으려 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GIST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대와 전남대 등 타 대학까지. 더 나아가 광주 전역으로 뻗어나갈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

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직접 발로 뛰어서 결국 해낼 것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 모카쇼를 기획하면서, 진실로 된다 믿으며 직접 발로 뛰면, 뭐든지 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함께 하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협찬하고 싶다, 용돈 주고 싶다. 주저 없이 ‘junghwan3588@gm.gist.ac.kr’로 연락해주세요.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님, 동네 주민, 소상공인 그 누구든 마다하지 않습니다. 혹시 알아요? 이 인터뷰 기사를 보고, 어떤 스파크가 튀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감사합니다.



이정환  
(전컴, 19)

## 사령

## ■사임

편집장 이은찬  
부편집장 김기범  
책임기자 유지연  
박준서  
변진철

## ■임명

정기자 양태규  
정기자 김연우  
이재희  
천태성



## 지스트신문

2016년 4월 11일 창간  
발행인 박래길  
주간 이주형 편집장 이은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LG도서관 102호 GIST신문사  
전화 062-715-5810  
이메일 editor@gist.ac.kr 웹사이트 gistnews.co.kr  
페이스북 facebook.com/Gistsinmoon  
인스타그램 @gistnews\_official